

제5대 정·부위원장 선거

이경호 · 조성래 후보 당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5대 정·부위원장 선거 결과

이경호 · 조성래 후보
찬성률 94%로 당선!!

- 투표권자 : 2,010명
- 투표 : 1,597명(79.4%)
- 찬성 : 1,502명(94%)
- 반대 : 80명
- 무효 : 15명

2018년 2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이경호 · 조성래 당선자가 드리는 글

우리 2천 2백여 동지들 모두가 주인공



동지여러분

지난 겨울은 적잖이 추웠습니다. 두툼한 패딩에, 모자와 장갑 목도리까지 동원해 추위를 막아보려 했지만 매서운 겨울 찬바람은 아랑곳없이 속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퇴진과 결단을 요구했던 그 장소들을... 피켓과 손 팻말을 들고 찾아갔던 광화문광장을, 과천정부청사를, 명지대학교를, 법무법인 (바른)을, 그리고 전국 곳곳의 현장들을...

그 현장 곳곳에서 지난 겨울 우리 2천 2백여 명 동지들은 울분과 분노를 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분과 분노보다 더 앞선 것은 분명 사죄와 반성의 목소리였고 앞으로

KBS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각오와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는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남김없이 드러내고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철저히 가려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달라질 KBS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보여줘야 합니다.

부술 것은 부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만들 것은 과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142일간 우리가 파업을 했던 이유고, 새로운 사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던 이유입니다.

그 중심에, 그 선두에, 우리 2천 2백여 동지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 주십시오.

사장도 본부노조 정부위원장도 결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다부진 각오와 자신감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제대로 된 KBS의 모습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희 둘에게 과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조합원 동지들 모두가 위원장이라는 자세로 겹쳐 임하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 5대 정부위원장 당선자 이경호 조성래

성명서

새 사장 후보자, 촛불정신과 파업정신을 잊지 말아야

사장 후보자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과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양승동 후보를 KBS사장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나면 고대영 해임 이후 2달 가까이 계속되던 과도기도 끝날 것이다. 우선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양승동 후보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동시에 처음 시도되었던 시민자문단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과 사장 선출 절차를 주관했던 이사회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주지하다시피 금번 사장 선출은 2200 새노조 조합원들이 사내외의 온갖 방해공작에 맞서 142일이라는 역사적인 파업투쟁을 통해 고대영 사장을 해임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KBS의 리더십은 지난 10년간 KBS를 지배했던 구체제를 일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KBS를 독립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겸비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KBS를 지킬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새 사장의 1차적인 덕목은 얼마나 그가 정당성을 갖추었느냐였다. 권력이 KBS를 유린한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KBS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은 어떻게 싸웠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리고 함께 싸웠던 인물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사회가 양승동 후보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KBS를 건설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열의를 반영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 사장 후보자와 KBS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가시밭길이다. 지난 10년간 KBS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트렸던 적폐들은 여전히 사내 곳곳에 퍼져있고 뉴스와 프로그램, 인사, 조직에도 남아있다. 최대한 빨리 사내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 KBS 건설을 위한 재건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새 사장 후보자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권을 탄핵시킨 촛불 정신과 고대영 해임을 이끌어 낸 파업정신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어정쩡한 화합이나 눈치 보기는 되려 KBS의 시계를 뒤로 돌릴 것이며 KBS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까지 놓친다는 것을 새 사장 후보자는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언론노조KBS본부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새 사장의 행보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촛불정신과 파업정신을 배반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새 노조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회사를 견제하고 또 싸워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새로운 KBS의 미래를 거부하며 호시탐탐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내 세력들에게도 경고한다. 지난 10년, KBS가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하고 종편과 케이블TV에게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구시대적이고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것이다. 반성하기 싫다면 최소한 자중자애하라. 당신들의 경거망동 때문에 KBS의 새 출발이 방해받는다면 전국언론노조KBS본부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